

오늘 민주당 광주·전남도당 대의원 대회

대의원 12% ... 대표 경선 항배 가른다

대표 경선, 지역 위원장 임김따라 표심 좌우
최고위 경선, 정치 성향보다 지역 연고 택할 듯

통합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이 종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1일 열리는 광주시당, 전남도당 대의원 대회에 당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 대의원의 12%(1천481명)를 차지하는 광주·전남지역 대의원의 표심에 따라 대표 경선 구도는 물론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지방 대의원 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광주시당, 전남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는다는 방침 아래 표심을 뒤흔들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당권에 도전하는 정세균 후보는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강력한 야당 구축



통합민주당 정세균, 추미애, 정대철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 SBS방송국에서 열린 통합민주당대표경선 토론 TV녹화를 앞두고 보도용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전대 丁·秋·鄭 막판 세몰이

정세균, 전·현직의원 40여명 매머드캠프
추미애, 선대위 발족 개혁성향 의원 합류
정대철, 정동영측 일부 인사 등 물밑 지원

통합민주당 대표 경선이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각 자별 막판 세몰이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조직적 열세를 겪어온 추미애 후보는 뒤늦게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세 과시에 나섰다. 추 후보는 지난달 30일 오전 여의도 대화빌딩에서 전제회의를 겸한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막판 대역전극을 자신했다. 선대위에는 4선의 전정배 의원과 3선의 이종걸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을 비롯 우원식, 이재정, 정성호 전 의원이 각각 총괄기획본부장, 당원참여운동본부장, 홍보본부장, 정책본부장으로 선임되는 등 당내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
선대위 부위원장은 구 민주계 김성순 의원이, 대변인은

정동영계의 노승래 전 의원이 각각 맡았다.
조직 우위를 기반으로 대세론 확산에 나선 정세균 후보는 공식적인 선대위 발족 없이 조용히 세 불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후보는 선대위는 꾸리지 않았으나 캠프를 들여다보면 대선 조직을 방불케 한다.
수도권 386 그룹과 구 열린우리당계가 든든한 지지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윤호중 전 의원을 비롯 전병헌, 최재성 의원과 오영식, 이상호 전 의원 등 30~40명 이상의 전·현직 의원들이 캠프에 포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정대철 후보 측도 공식 선대위를 띄우진 않았지만 민주연합청년동맹회 부회장 출신인 안영철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가 선대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이 홍보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정동영 전 의장 계열의 박명광 전 의원이 후원회장을 맡는 등 정 의장 측 일부 인사들이 결합했으며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동구·전남 나주 '우수'

민선 4기 2년 매니페스토 웹 소통 평가

광주지역에서는 동구, 전남지역에서는 나주시가 매니페스토 웹 소통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는 제18대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30)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민선 4기 2주년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웹 소통 현황 평가'를 실시한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동구와 나주시 두 지역이 '우수', 광주 남

구·서구·담양군이 '평균' 평점을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공약 공개를 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게 공개해 '소통 부재' 평가를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니페스토 이행에 관한 정보에 주민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접근성 평가지수), 단체장의 매니페스토 관련 활동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내용성 평가지수),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반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참여성 평가지수)를 가늠하는 웹 소통지수 지표를 개발해 평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시의회 의장 박정채 의원
무안군의회 의장 정길수 의원
담양군의회 의장 양대수 의원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박정채(61) 의원, 부의장에 강진원(60)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체 25표 중 14표를 얻어 6표와 5표를 획득한 김명남(69) 의원과 추상은(59)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당선됐다.
무안군의회도 이날 임시회에서 제 5대 후반기 의장에 정길수 의원(52·무안읍), 부의장에 임택수 의원(53·삼향면)을 선출했다.
정 의원은 1차 투표에서 7명의 의원 중 5명의 지지를 얻

“최고위원 되면 기득권 버리고 민주당 통합 구심점 역할 할 터”

광주 은 정균환 전 의원



견제 야당으로 키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정균환 후보가 지난달 30일 광주를 방문, “최고위원이 되면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당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1일 열리는 민주당 광주·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온 정 후보는 이날 “민주당은 통합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계파간 갈등으로 당원들의 화합적 통합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통합에 앞장섰던 노력 등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하나로 엮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당대표 경선을 고민해오다 최고위원 경선으로 방향을 전환한 정 후보는 “여당할 때 원내총무를 두 번 했고 대표 직무대행까지 했던 능력과 경륜을 바탕으로 당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해달라는 동료 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최고위원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주당을 국민 지지를 받는 강력한

강조했다.
국회 등원과 관련, 그는 “한나라당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등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들은 쇄고기 재협상을 원하는데, 무조건 등원하라고만 하면 되나”면서 “한나라당을 걸으므로 잘못된 척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대화를 통해 가족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나서는 등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영암·무안·해남·나주·목포 등을 돌며 당원들과 만남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추 후보와 정 후보는 이제 열린우리당 이미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리더십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또,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박주선, 김민석, 정균환 후보 등은 지역 정서와 구 민주계의 표심에 호소하면서도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고 송영길, 문병호, 김진표, 문학진, 안희정, 이상수 후보 등은 민주당의 개혁 정체성 회복 등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대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일단 광주·전남 대의원 구성은 구 열린우리당계와 구 민주계가 7:3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의원 선정에 지역위원장 임금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데다 소수 계파 배려 규정(40%)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20개 선거구 가운데 구 열린우리당 출신 지역위원장은 13명에 이르는 반면 구 민주당 출신 지역위원장은 6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의원 구도가 최고위원 경선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 지지 요구를 한다고 해도 1인 2표라는 점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의원들의 표심이 정치적 성향보다는 지역적 연고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반해 대표 경선은 다른 상황이다. 1인 1표라는 점에서 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 지지를 적극 권할 경우, 대의원의 표심이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 측면에서 광주·전남지역 지구당 위원장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세균 후보가 추미애, 정대철 후보보다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대의원 표심이 그동안 안정보다는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뜻밖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2-hour delivery' service. Text includes: '최초의 수도권 2시간 택배 창업 투자자 모집', '달리미 2hour 택배 서비스', '문의전화: 02)767-2641~3'.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hand holding a delivery package and various logos.